
집단 검사기관에서의 흉부 간접촬영에 관한 실태 비교 (병무청 위주로)

신구대학 방사선과 3학년

정재용, 유승혁, 노정백, 이재덕

목 적 : 최근 들어 흡연인구의 증가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호흡기 질환환자가 증가하면서 특히 폐암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1973년과 1992년의 미국의 암 사망 통계를 보면 20년 동안 전체 암 사망률은 6.3%가 늘었는데 폐암을 제외시에는 3.4%가 감소하였다.

이에 폐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신체검사나 집단건강검진 시행시 흉부촬영을 간접촬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촬영은 이동이 간편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흉부질환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보다 나은 간접촬영의 실시를 위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 간접촬영용 장치가 있는 진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종합병원, 보건소, 종합검진센터, 병무청 등이 있으며 각 진료기관의 QC의 실태나 촬영조건, 그리고 장비의 노후 상태 등을 전국 13곳의 병무청과 4곳의 보건소, 12곳의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간접촬영실에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조사하였다.

고 찰 : 진단검사에서 결핵은 물론 폐암까지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미러카메라가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는 렌즈카메라는 굴절렌즈를 사용하여 사진의 농도가 일정치 않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으나 미러카메라는 오목렌즈에 의한 미러방식임으로 농도가 일정한 사진, 즉 정보량이 풍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렌즈의 밝기에 따라서는 2배 이상의 피폭량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렌즈카메라의 폐기를 권장하고 있다.

결 과 : 병무청의 육군종합정비창과 같이 전문 정비기관에 의해 의료법 32조 2항에 나타나듯 최소 3년에 한번의 보수 점검이 필요하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할 때마다 재개된바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나 렌즈카메라의 폐지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빠른 시일내에 낙후된 장비의 교체와 보수점검의 전문기관으로 인한 수시점검이 정확한 진단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